

기아차 노사협상 해남기나

기본급 싸고 “인상” “동결” 이견 팽팽

28일까지 타결 안되면 연내 해결 난망

기아차 노사가 임금 협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늦어도 28일까지는 잠정 합의안이 나와야 조합원·간·반·부표를 거쳐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양측은 기본급 인상과 동결이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노사는 이날 기본급을 올리지 않는 임금 동결과 경영성과 달성을 성과급 300% (통상임금 대비)와 3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경제계는 기아차의 협상 주이를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연내 타결이 무산되면 광주공장의 쇄울증 등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다.

기아차 노조는 24일 오전 노조 흡

페이지에 “사측이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때까지 임금교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내 임금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교섭에 나서 지난 22일부터 휴회, 재개를 반복한 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교섭을 또다시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떠난 것.

양측은 이날 기본급을 올리지 않는 임금 동결과 경영성과 달성을 성과급 300% (통상임금 대비)와 300만원 등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 측은 우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낸데다, 사측이 올해 초 삭감했던 임원들의 급여(10%)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식이 나온 만큼 기본급을 5.5%는 올려줘야 한다는 입장이

다.

노조는 또 이미 임금 협상을 타결한 현대차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앞서 임금동결, 경영성과 달성을 성과급 300% (통상임금 대비)와 200만원, 경영실적 증진 격려금 200만원, 무과업과 임금동결시 100만원, 주식 40주 지급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반면, 사측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환율 방어막이 견고하고 글로벌 톱 메이커들이 M&A와 체력 회복 등으로 반격에 나서면서 어느 때보다 경영 환경이 불안하다는 점에서 임금 동결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현대차와 비교할 때 영업이익(3분기까지 현대차 1조3천978억·기아차 7천327억)이 낮은 상황에서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분규로 타결한 현대차와 달리, 기아차는 지난 6월30일부터 8월18일 까지 부분·전면 파업 등으로 8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손실태수도 5만

대에 달한 만큼 현대차와의 차별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쏙을 증산을 위한 광주공장 증축 공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가 임금 협상 투쟁이 종료될 때까지 특근 및 모든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사측이 절대 공기를 감안, 24일 공사를 진행하려 노사간 대립하는 상황도 빛어졌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양측이 한발씩 양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됐으면 한다”면서도 기아차의 실적이 정부의 세제 지원 혜택 등도 한몫을 한데다, 19년째 연속 파업을 벌인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요구는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비난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2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호생명 지분 13.29%를 넘기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향후 금호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금호생명 지분을 52% 수준으로 늘려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금호생명 인수에는 총 4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한데, 산업은행과 칸서스자산운용이 설립하게 될 PEF가 인수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24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서 열린 포스코 미소금융 1호점 개소식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왼쪽부터 네번 째) 등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포스코 제공)

포스코 미소금융 내달 광양에 2호점

서울 1호점 오픈 이어 저소득층 대출 시작

포스코가 24일 미소금융 1호점을 서울에 개설한 데 이어, 내년 1월에 광양에 2호점을 낼 계획이다.

포스코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화곡동 카지산 재래시장 안에 포스코 미소금융 1호점을 개설, 저소득 서민과 영세상인들에게 대한 소

액 신용대출 업무를 시작했다.

포스코미소금융재단은 10년간

총 500억원을 출연, 이 자금을 바

로 저도권 금융기관 접근이 어려운 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해 준다. 대출한도는 500만 원~5천만원이며 금리는 연4.5%로 일반 은행 대출금리에 비해 크게 낮다. 대출원금과 이자는 6개 월~1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할 상환 받는다.

포스코미소금융재단은 서울 1호점에 이어 포항과 광양지점은 내년 1월중에 낼 계획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현대·기아차 부회장 김용환·정석수씨



김용환 부회장

이재록 부사장

현대·기아차그룹은 24일 현대차 112명, 기아차 54명, 계열사 138명 등 총 304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대상자는 ▲부회장 2명 ▲부사장 7명 ▲전무 29명 ▲상무 40명 ▲이사 96명 ▲이사대우 130명으로 구성됐다.

부회장으로는 현대차 김용환 사장과 현대모비스 정석수 사장이 선임됐다. 신임 김용환 부회장은 현대차 유럽총괄법인장 및 현대차와 기아차의 해외영업본부장을 지내는 등 그룹의 글로벌 사업 전략 추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신임 정석수 부회장은 현대제철 관리·영업담당, 현대파워텍 대표이사 등을 지내고 2005년부터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현대차 오승국 베이징현대기차 구매본부장, 기아차 이재록 재경본부

장, 현대모비스 김순화 앤솔라배마 법무인장, 송창인 품질본부장, 김한수 구매담당, 현대위아 류재우 차량부품사업본부장, 현대제철 김수민 부대설비설본부장 등은 부사장이 됐다.

기아차 광주공장의 경우 박광식 종합관리실장(이사대우)이 이사로 승진했고 최준영 노사협력팀장(부장)이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여성인력에 대한 발탁 인사도 이뤄져 현대차 김화자 부장과 현대카드 이미영 부장 등 2명이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체동석 상근고문은 유임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산銀, 금호생명 공동 인수 추진

매각작업 ‘금물살’

산업은행이 금호생명 공동 인수자로 나설 전망이어서, 교차상태에 빠진 매각작업이 금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금호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사모투자펀드(PEF)를 설립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생명에 대한 실사를 거친 후 투자여부를 최

광산업 기술이전 1년새 2배 이상 늘어

광기술원 상품화 본격 추진 경쟁력 확보

한국광기술원이 개발한 광(光)산업 기술들의 상품화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어서 광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적 혁신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광기술원은 24일 2009년 기술 이전 실적'을 파악한 결과, 모두 21건으로 지난해 10건에 견줘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업체들에게 이전한 기술은 ▲UV (자외선) LED를 기반으로 한 백색 조명용 패키지 기술 ▲초고출력 380

nm UV LED 칩 ▲4배 광학줌, 500만 화소 CMOS 카메라로 개발에 관한 기술 ▲Non-sapphire 기반으로 한 고도 휴대 청색 LED 칩 등으로, 이전 수입도 지난해 1억2천만원에서 10배 이상 급증한 1억2천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국내외 특히 국내 60건, 국외 6건으로 누적실적이 국내출원 244건, 해외출원 14건, 등록 83건에 달한다.

광기술원은 또 기업과 함께 추진한 국가 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도 기술이전이 늘어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 이전한 것이 14건에 달한다. 광기

업체들의 상품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관련 산업의 고용·매출 등이 크게 신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82.34 (+20.99)
코스닥지수
511.19 (+2.35)
금리 (국고채 3년)
4.32% (+0.04)
원·달러 환율
1,175.00원 (-8.6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수원지구 롯데마트 앞 펠리스타워빌딩 입대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골프용품, 의류아울렛,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
2층: 패밀리레스토랑, 전문식당가, 의류아울렛, 아웃도어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바둑학원, 당구장 등
6층: 학원가, 영어·수학·입시, 미술·음악·전문학원, 독서실 등
7층: 스카이라운지, 생맥주 허프바

각층 약 230평 (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원동 롯데마트 앞 10×10×6m 코너 상업 용지 270㎡ 투자최고, 수익을 최고. 평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원동 주변 대로변(35m, 4번로) 3층사무실 140㎡ 평당 110만원

의원·학원·사무실 적합

• 수원동 삼성전자 앞 환경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평당 150만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원동 삼성전자 앞 환경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평당 120만원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10 원 011-802-2532
(광주광역시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리나파)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시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근린시설·원룸 대표이사 010-7570-7525

숙박시설/생활 대표이사 010-5870-0005

공장/토지 유형복합장 011-802-1895

기타 062)236-3400

부동산 062)236-3400

기타 062)236-3400